

‘페미니즘 대중화’ 시대, 페미니스트 독서/출판의 향방 —‘여성 에세이’를 중심으로

정고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목차

- 1 들어가며
- 2 2010년대 에세이 열풍과 ‘여성 에세이’: 에세이의 전유 주체,
여성-대중
- 3 페미니스트 ‘되기’에서 여성/페미니스트로 ‘살기’로
 - 3.1 비혼, 혹은 새로운 가족 만들기
 - 3.2 여성이여 ‘돈’과 ‘야망’을 가져라
- 4 나오며

‘페미니즘 리부트’ 시기, 페미니스트로 각성한 여성들의 집단적 등장은 여성의 말하기, 읽기, 쓰기라는 문화적 실천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 글은 ‘리부트’ 초기와 구별되는 2010년대 후반 ‘페미니즘 대중화’ 시기의 중요한 문화현상으로서 ‘여성 에세이’가 부상한 맥락을 살펴보고, ‘여성 에세이’가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들을 분석했다. 문인이나 지식인이 아닌 평범한 여성-대중들에 의해 쓰인 에세이가 활발하게 출판되고 읽히는 것은 여성들이 동시대·동세대 여성의 삶에서 여성·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 에세이에서 임신·출산, 비혼, 대안적 여성 공동체, 여성 경제라는 주제가 두드러지는 것은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4B’·‘탈코르셋’의 실천을 통해 성차별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이다.

본고는 여성들의 에세이 읽기/쓰기를 여성의 일상적 경험을 경유하여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를 드러내고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가 정해 놓은 생애적 각본과 역할을 거부하는 실천으로 의미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차별적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위기를 관리하고 적절한 투자 전략을 조언하면서 개별적 노력을 통해 각자도생하라는 신자유주의적 각본 또한 ‘여성 에세이’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페미니스트 독서/출판의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여성 에세이’가 새로운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페미니즘의 언어와 지식을 재발명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입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국문핵심어: 페미니즘 대중화, 페미니즘 리부트, 여성 에세이, 4B(비섹스, 비연애, 비혼, 비출산), 탈코르셋

1 들어가며

‘페미니즘 리부트’의 시간으로부터 몇 년이 지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이

‘대중화’되었다고 말한다. 2015~2016년이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 ‘메갈리아’의 탄생,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계_내_성폭력’ 폭로 등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페미니스트로 각성한 여성들의 집단적 등장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의 흐름은 사회, 정치, 문화 전 영역에서 페미니즘을 핵심적인 의제로 확산시키는 데 성공했다.¹ 그리고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공론화로부터 본격화된 ‘미투운동’은 ‘성폭력 피해경험 말하기(Speak out)’라는 여성주의 운동의 오랜 방법과 더불어, 피해자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여성 집단이 존재하는 가운데 확산될 수 있었다.² ‘여성으로 겪은 모든 것을 말하자, 그러면 세상이 변할 것이다.’라는 믿음과 실천은 페미니즘을 ‘대중화’할 수 있었던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메갈리아’의 여성들이 ‘한남’의 언어를 되돌려주는 ‘미러링’을 주요한 전략으로 내세우고, 각종 ‘오빠’들에 의한 원치 않는 자랑과 간섭을 ‘맨스플레인’(『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이라는 한 단어로 명료하게 쳐내면서 성차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전’ 언어를 갈구(『입이 트이는 페미니즘』)하는 한편, ‘여성이기에 죽었다’,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는 의식 속에서 거리로 나선 여성들의 외침에 대한 아카이빙(『강남역 10번 출구, 1004개의 포스트잇』, 『거리에 선 페미니즘』)이 이루어진 2015~2016년을 떠올려보면, ‘페미니즘 리부트’를 대표하는 문화적 현상이 바로 여성들의 목소리를 쓰고 함께 읽는 흐름이었음은 필연적이고도 필사적인 일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필자는 2017년 발표한 「2015~2016년 페미니즘 출판/독서의 양상과 의

1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한국영화를 통해 본 포스트페미니즘과 그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 나무연필, 2017, 47쪽.

2 김보화, 「성폭력 상담일지를 통해 본 2018년 한국 미투운동의 의미」, 『페미니즘연구』 제 19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19, 4-5쪽. 김보화는 ‘미투운동’ 시기에 성폭력 피해 경험을 상담했던 여성들이 미디어에 보도된 미투 사례를 통해 차마 말하지 못했거나 주변인들에게 외면당했던 피해 경험을 ‘성폭력’으로 구성할 수 있는 언어를 얻게 되었으며, 이는 공론화의 사례가 성폭력 피해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임을 환기시켜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라는 글에서 20~30대 여성독자들이 형성한 페미니즘 도서 베스트셀러화 현상과 페미니즘 독서문화가 한국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와 여성혐오를 고발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선언하는 움직임(‘#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³ 2017년 발표된 논문의 후속 연구로서, 이 글의 관심은 그러한 흐름을 주도했던 20~30대 페미니스트들이 형성한 페미니스트 도서/출판문화가 어떻게 지속되거나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한 해의 출판 키워드에 ‘페미니즘’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으며, 여러 통계수치는 20~30대 여성들이 여전히 출판계에서 유의미한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독서 주체임을 증명하고 있다. 2017년 여성학 분야 서적은 매년 평균 30종이 발간되던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78종이 출간되었으며, 온라인 서점 예스24의 전체 판매 도서 중 37.5%를 30대 여성이, 36.0%를 40대 여성이 구매했다.⁴ 또한 문학작품을 포함하면 페미니즘 관련 도서의 판매권수가 전년도인 2016년에 비해 무려 751.1% 증가했다고 한다.(예스24)⁵ 교보문고의 경우 2013년 8,000여 권이었던 페미니즘 관련 도서 판매량이 2014년 1만 1,143권, 2015년 1만 1,628권, 2016년 3만 1,484권, 2017년 6만 3,196권으로 늘었다.⁶ 2018년 미투운동이 시작되자 잠시 주춤하던 페미니즘 도서 구입이 다시 늘어나는 양상도 나타났다.⁷

3 정고은, 「2015~2016년 페미니즘 출판/독서의 양상과 의미」, 『사이앰SAI』 제22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7 참조.

4 「2017년 도서시장 키워드는 역주행·소설·정치·페미니즘」, 『한국경제』, 2017.12.4.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712046495Y>) (최종접속일: 2022.11.9.)

5 「올해 출판시장, 정치·페미니즘 책 약진」, 『노컷뉴스』, 2017.12.5. (<https://www.nocutnews.co.kr/news/4887920>) (최종접속일: 2022.11.9.)

6 「서점가는 페미니즘 열풍… 2018년을 달군 페미니즘 도서는?」, 『여성신문』, 2018.12.8.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463>) (최종접속일: 2022.11.9.)

7 「‘미투운동’ 확산에 ‘82년생’·‘현남오빠’ 등 페미니즘 책 판매 증가」, 『뉴스1』, 2018.3.22. (https://m.news1.kr/articles/?3268516#_enliple) (최종접속일: 2022.11.9.)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양적 증가만 있을 뿐 비슷한 양상이 지속되는 듯하지만, 페미니스트 독서/출판의 세부적인 내용과 맥락은 달라졌다. 2017년 이후 페미니즘 운동은 내부 분화를 거치면서 다각화되었으며, ‘리부트’ 초기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페미니스트 독서문화와 페미니즘 서적 출판이 동시대 페미니즘 운동의 전개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움직인다고 할 때, 독서/출판의 향방을 읽어내는 작업은 오늘날 여성주체들의 정치적 실천의 성격을 확인하고 이들이 어떠한 언어와 실천을 페미니즘 지식문화로 구축하고자 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페미니즘 베스트셀러를 함께 구입하고 읽음으로써 페미니스트임을 선언하고 페미니즘 의식을 고취하는 여성들은 단일한 집단처럼 상상되었다.⁸ 하지만 성소수자·게이 혐오를 둘러싼 갈등과 ‘메갈리아’의 분화 이후, 트랜스젠더를 배제하고 ‘여성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주장하는 담론이 페미니즘 운동 내부에서 부상하면서 ‘래디컬 페미니스트’ 또는 ‘터프(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 TERF)’라 불리는 페미니스트들의 동일성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⁹ 이와 같은 분화의 맥락을 염두에 둔다면 페미니스트 독서/출판은 더 이상 페미니스트로의 정체화라는 목표의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장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¹⁰

8 정고은, 앞의 글 참조.

9 이효민은 한국의 ‘터프’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서,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적 주장과 내러티브를 크게 네 가지(젠더는 허상이다,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여성’을 위협하는 잠재적 범죄자이다, ‘생물학적 여성’은 가부장제 사회의 가장 큰 피해자이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오로지 두 개의 성별만이 존재한다)로 정리하고 있다. 이효민, 「페미니즘 정치학의 급진적 재구성: 한국 ‘TERF’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34권 3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9, 177-198쪽.

10 트위터처럼 실시간으로 논쟁이 번지는 온라인 공간에서 논쟁에 ‘참전’하여 ‘승리’하기 위한 언어를 구하고자 하는 ‘터프’ 입장의 10~20대 페미니스트들이 트위터에 뜨는 정보만으로 트랜스젠더와 페미니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논쟁의 피로감 속에서 ‘알기(knowing)’의 과정을 멈추게 되는 조건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로는 송지수, 「페미니즘 알기의 의미—10-20대 여성들의 ‘TERF’ 지지 입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을 참조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저자는 이들 페미니스트들이 온라인에서는 조리돌림의 위험을 우려하여 자신의 모순과 혼란을 고백할 수 없지만, 오프라인에서 여러 입장을 가진 페미니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글은 ‘리부트’ 초기와 구별되는 2010년대 후반 ‘페미니즘 대중화’ 시기의 중요한 문화현상으로서 ‘여성 에세이’가 부상한 맥락을 살펴보고, ‘여성 에세이’가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들을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여성들의 독서/출판 실천의 지향성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온라인 서점 중 ‘여성 에세이’ 분야를 따로 두고 있는 예스24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참고하였으며, 베스트셀러 외에도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반향을 일으킨 에세이, 페미니즘 서적의 주요한 유통 경로인 펀딩 플랫폼 ‘텀블벅’에 올라온 에세이 등 다양한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장에서는 ‘여성 에세이’의 독자와 글쓰기 주체, 출판 방식, 소재에 주목하였으며, 3장에서는 2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여성 에세이’의 지배적 경향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주제가 부상하게 된 맥락과 의미를 논하였다.

2 2010년대 에세이 열풍과 ‘여성 에세이’

: 에세이의 전유 주체, 여성-대중

저자의 직접적 경험을 글로 풀어낸 양식을 지칭할 때 우리는 주로 ‘수필’이나 ‘에세이’와 같은 말을 사용한다. 대체로 ‘수필’이라는 단어에는 ‘문인’들에 의해 쓰인 자전적 글을 떠올리게 하는 뉘앙스가 있고 최근에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아울러서 ‘에세이’라고 지칭하는 추세지만, 그것을 수필이라고 부르든 산문, 에세이, 생활글, 잡문이라고 부르든 간에 문학사에서 이러한 ‘직접성’의 양식은 시나 소설과 달리 문학사의 서술 대상으로 여겨지진 않았다. 그러나 에세이 양식은 시기마다 교양서, 실용서, 지침서,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수용되면서 당대의 주류적 감정 구조를 반영하고 또 형성하는 역할을 해왔다.

사실 2010년대 에세이의 약진은 특정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출판계 전체를 아우르는 현상이었다. “멘토에서 단독자로”¹¹라는 기사 제목이 알려

트를 직접 만나고 페미니즘 수업을 들으면서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스탠스’를 조정하고 페미니즘 지식 습득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1 「“멘토에서 단독자로” 40·50→20·40 젊어진 에세이 독자», ‘뉴스와이어’ 사이트의 알려진 보도자료 (1999~2021년 에세이 분야 도서 구매 경향 분석), 2021.7.8. 참조.

주듯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2011), 헤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2012)과 같은 ‘어른 멘토’들의 에세이가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리다가, 2010년대 후반, 2020년에 들어서는 비슷한 계열의 ‘(힐링) 에세이’ 중에서도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2018)처럼 귀여운 캐릭터와 따뜻한 글귀를 모아놓은 캐릭터 에세이 시리즈나, 김수현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2016), 백세희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2018), 하완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2018)처럼 개인, 단독자로서의 ‘나’에 집중하는 책들이 몇십만 부, 많게는 백만 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러한 2010년대 후반 에세이의 인기는 과거 에세이 장르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양식으로 받아들여지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주로 교수·지식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에 의해 쓰이면서 ‘사색’, ‘지식’, ‘지성’, ‘교양’, ‘앎’과 같은 키워드와 접속하던 양상과는 뚜렷하게 구별된다.¹² 이제 독자들은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진 스승·조언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약을 먹으며 힘들면 일을 그만두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동시대·동세대의 글을 찾아 읽는다.¹³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26747>) (최종접속일: 2022.11.9.)

12 가령 ‘수필의 시대’라 불리는 1960년대의 수필(에세이) 붐을 분석한 오혜진은 이 시기 에세이의 인기가 올바른 지성과 교양의 형성이라는 목적하에 공산주의나 저항적 실존주의와 같은 앎의 성격을 배제하고, 순수하고 사색적인 앎을 긍정하는 전후 문화정치의 산물임을 밝혔다. 주로 판·검사, 의사, 교수, 목사처럼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드러내면서도, 지나치게 전문화된 내용보다는 생활인으로서의 면모와 인문교양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혜를 제공하는 이들의 에세이는 “근대 아카데미즘의 제도적·전문적 앎과 독서대중이 지닌 보편적 앎의 간극을 보충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했다. 오혜진, 「카뮈, 마르크스, 이어령-1960년대 에세이즘을 통해 본 교양의 문화정치」, 『한국학논집』 제51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 160쪽.

13 치유와 힐링을 내건 2017~2018년 베스트셀러 장에서 또 하나의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과 우울증에 대한 서사이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의 대대적인 성공에서도 알 수 있듯, ‘정병리(‘정신병’과 접미사 ‘-er’의 합성어)’들은 정신질환 이력이 절대 알려지면 안 된다는 사회적 낙인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상담 경험, 약 복용, 일상, 고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화하고 정보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우울증 서사와 페미니즘 운동의 교차에 주목하는 연구로는 장윤원, 「20-30대 여성 우울증과 페미니스트 대항서사의 가능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을 참조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수많은 ‘나’들의 돌출로 만들어지고 있는 ‘에세이 제국’에 대하여, ‘행복한 이기주의자’로서의 ‘나’, 타인의 말을 경청하기보다 ‘나’를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나’를 강조한 결과, 타자와 공동체의 자리는 사라지고 자기보존과 자본의 논리만이 강화된다는 비판적 논의도 존재한다.¹⁴ 그러나 이른바 ‘일인칭 글쓰기의 전성시대’가 청년 세대에게 모범적인 삶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오력’할 것을 강요하던 ‘헬조선’ 시대를 거쳐, 더 이상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틀 안에 갇혀 살지 않겠다는 선택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도래하였음을 떠올린다면,¹⁵ 에세이의 인기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단순히 출판자본 기획에의 포섭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자유로운 글쓰기 방식은 그것을 전유하는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사회의 지배적 담론의 성격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어 왔다. 오늘날 여성 에세이가 범람하고 있는 현상은 그것을 권력 이동의 징후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그러한 여성의 글쓰기를 통해 사회 문화적 구조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¹⁶라는 말처럼, 에세이 현상과 주체의 젠더적 측면을 읽어내는 것이다. 최근 20~30대 여성들이 우울증을 고백하는 자기서사 쓰기를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소수적 감정(마이너 필링스)’을 공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 의미화하고, 이를 다른 ‘미친 여자’들과의 연대 자원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 김은하의 논의¹⁷나, 에세이와 여성주의·성소수자 소설에서 나타나는 일인칭 글쓰기 형식의 출발점을 “누군가에 의해 대상화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그려내고 싶다는 욕망,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다시 보고 싶다는 욕망”¹⁸으로 읽어내는 정주아의 논의는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본 에세이 양식의 의미를 밝힌 글이라 할 수

14 장은수, 「에세이 열풍을 어떻게 볼 것인가」, 『황해문화』 제102호, 새얼문화재단, 2019 봄 참조.

15 정주아, 「1인칭 글쓰기 시대의 소설」, 『창작과비평』 제192호, 2021 여름, 53-56쪽.

16 이주미, 「여성 에세이를 통해 본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말의 귀환』과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111쪽.

17 김은하, 「여성 정병리의 소수적 감정 쓰기」, 임옥희·김미연·김은하, 『실격의 페다고지』, 도서출판 여이연, 2022, 182-183쪽, 190-191쪽 참조.

18 정주아, 앞의 글, 60쪽.

있다.

즉 오늘날 ‘여성 에세이’는 단지 ‘나’가 어떠한 상태여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서 나아가, 동시대 페미니즘 운동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여성으로서 겪는 일상적 차별을 보여주고, 더 나은 미래를 현실화할 방법을 고민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힐링 에세이’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여성 에세이’를 읽고 쓰는 주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15~2016년 ‘리부트’ 초기에 베스트셀러가 된 페미니즘 서적은 주로 자기 고백적인 에세이나 강연록으로, 리베카 솔닛의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2015),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의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2016), 록산 게이의 『나쁜 페미니스트』(2016)와 같은 대중서, 입문서 역할을 하는 책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에세이는 계속해서 여성 독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 알라딘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0년에 20대 독자들의 에세이 구매율이 급증하여 2000년대에 1%에 불과했던 수치가 전체의 25%로 증가했으며, ‘여성 에세이’ 작가들이 새롭게 주목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에세이 독자층에 있어서도 여성 독자가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고 한다.¹⁹ 유사하게 예스24 역시 2020년 여성 작가 에세이의 판매량은 10년 전에 비해 134% 증가했으며, 구매자의 81.7%가 여성으로 30~40대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²⁰ 이렇게 ‘여성 에세이’ 독자층이 20대부터 30, 40대까지를 아우르게 된 것은 ‘여성 에세이’가 다루는 페미니즘 이슈가 ‘탈코르셋’과 같은 10~20대 ‘영영페미니스트’들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육아와 같은 소재, ‘엄마’로서의 위치에 대한 자기고백 등 더 많은 세대의 여성들을 포괄할 수 있는 쪽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많은 에세이가 번역서가 아니라 국내 저자에 의해 쓰이고 있으며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

19 각주 11의 알라딘 보도자료 참조.

20 「2020 여성 에세이 늘어, 주요 구매층도 3040으로 변화」, 『채널에스』, 2020.12.10.
(http://ch.yes24.com/Article/View/43548?Ccode=000_008_001) (최종접속일: 2022. 11.9.)

내저자의 성장은 ‘페미니즘 대중화’를 거치고 있는 출판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특히 에세이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예스24의 월간 베스트셀러 목록을 살펴보면, 은수연의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2012), 이영미의 『마녀체력』(2018), 박은지의 『제가 알아서 할게요』(2018), 김흔비의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2018), 김진아의 『나는 내 파일을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2019), 송해나의 『나는 아기 캐리어가 아닙니다』(2019), 민서영의 『쌍년의 미학』(2018), 우아영의 『아기 말고 내 몸이 궁금해서』(2020), 전지민의 『육아가 한 편의 시라면 좋겠지만』(2020), 하말념當舖의 『따님이 기가 세요』(2021), 김하나·황선우의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2019) 등 대부분의 에세이가 국내저자에 의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¹

또한 여성 문인이나 지식인 필자뿐만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처럼 ‘일반인’들이 출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은 주목을 요한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첫 책을 낸 저자의 이름이 이렇게까지 자주 보인 한 해가 있을까 싶다”²²는 말처럼, 이제 여성-대중은 독자의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쓰는 저자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는 존재로 부상했다. 여기에는 카카오 브런치²³이나 텀블벅의 출판 펀딩, ‘일간 이슬아’와 같은 메일링 서비스 등 유명한 작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글을 쓰고 출판·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긴 것도 크게 작용했다. 그중에서도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출판물이 가장 활발하게 올라오는 텀블벅의 경우를 살펴보자.

21 예스24의 ‘여성 에세이’ 베스트셀러 목록은 홈페이지에서 2018년 2월(전월 판매량 기준)부터 확인할 수 있다.

22 이다혜, 「책 읽기는 싫지만 에세이는 읽고 싶어」, 『자음과모음』 제40호, 2019 봄, 274쪽.

23 카카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브런치에 등록된 작가의 수가 5만 명이 넘었으며, 이 중 책을 출간한 작가는 2천 9백여 명, 출간 도서는 4천 6백여 권에 달한다고 한다. 이 중에서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황보름, 2022), 『젊은 ADHD의 슬픔』(정지음, 2021), 『90년생이 온다』(임홍택, 2018),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정문정, 2018),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하완, 2018), 『공부머리 독서법』(최승필, 2018)과 같은 베스트셀러가 브런치를 통해 탄생했다.

(<https://www.kakaocorp.co.kr/page/detail/9670>) (최종접속일: 2022.11.9.)

2021~2022 텀블벅 '에세이' 카테고리 중

여성, 페미니즘, 퀴어 관련 서적 목록²⁴

● **1인 가구, 비혼, 여성 공동체 등** 『이 결혼은 아이를 데리고 탈출합니다』(탈혼 가이드), 『여자 넷이 사는 집은 조용할 날이 없다』(여성 동거 기록),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여성 1인가구), 『이토록 다정한 세계』(여성 8인 일주일 마을살이 기록)

● **임신, 출산, 육아** 『결혼부터 아이까지』(가족을 만드는 일에 대한 자기계발서),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까지』(결혼으로 이주한 여성들의 이야기), 『엄마도 계속 클게』(열두 살 엄마의 그림일기), 『인생 초보인데 아기도 있어요』(엄마가 된 여성청년 이야기), 『육아, 겁내지 말자』(직장인 여성의 육아), 『소란스러운 로망 영양제 열두 알』(워킹맘), 『내 일을 지키고 싶은 엄마를 위한 안내서-확장판 인터뷰집』(일vs육아 인터뷰)

● **일상 등** 『싫 싫한 하루 보내세요』(다섯 여자의 욕망 에세이), 『92년생 K-장녀』(92년생 장녀들의 에세이), 『마침표를 찍는 데에만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밀레니얼 여성들의 편지), 『순자씨의 1일 1행』(여든아홉 순자씨의 일기), 『계란 깨는 여자들』(1990~1991년생 여성 에세이)

● **퀴어** 『유학생』(지역 퀴어의 목소리), 『트랜스젠더도 마라탕을 좋아 하나요』(트랜스젠더 인터뷰집), 『행복이 더 멀어지기 전에』(서울대 레즈비언 학생회장 김보미와 열 명의 성소수자 이야기)

● **성폭력** 『오빠, 범인』(남매성폭력 생존자 에세이·전시), 『허들을 넘는 여자들』(성범죄 대응 매뉴얼), 『부름받아 나선 이년』(교회 내 성차별·성폭력)

● **생리** 『나는 오늘도 좋은 느낌』(서울예대 학생들의 독립출판물), 『월경은 마라톤을 다했아서』(세대별 월경 에세이)

24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10일까지 업데이트된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필자가 주제별로 분류하였으며 괄호 안의 설명은 프로젝트 설명을 참조하였다. 다만 표면적으로 여성·페미니즘 관련 주제임이 잘 드러나지 않아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에세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건강, 운동** 『외인구단 리부팅』(여자 야구 이야기, 인터뷰집), 『헬스장 사람들』(헬스하는 여성 에세이)

● **그 외** 『나의 삶이 당신에게 이야기가 될 때』(여성 글쓰기), 『가시화』(숙명여대 재학생 페미니즘 독서 소모임, 리더십/탈코르셋/운동/연대/사랑), 『이제야, 나답게』(경력단절 여성), 『기울어진 무대 위 여성들』(무용 칼럼니스트의 여성주의 무대 비평), 『정일당 유고』(조선시대 여성 성리학자 기록), 『스키터』(엄마의 갱년기), 『이제서야』(숨겨진 한국 여성위인 이야기), 『여신은 칭찬일까?』(여성 아이돌)

● **기타 인터뷰집** 『엄마의 브랜드 1』(강원도 원주에서 브랜드를 운영하는 엄마들 인터뷰), 『우리는 넘어지며 언니가 된다』(4050 여성 인터뷰), 『엄마예술가의 시간』(다자녀여성예술가 인터뷰집), 『예술가의 초상』(여성예술가 25인 인터뷰/사진집), 『여성, 사장님 인터뷰』(20~50대 동네 여성 사장님 인터뷰), 『여성 청년 정치』(페미니스트 정치인 인터뷰)

편당 기간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 초 기준, 텀블벅에 올라와 있는 에세이 출판 프로젝트 중, 메인 화면을 통해 표면적으로 주제가 여성, 페미니즘, 쿼어와 관련된 것이거나 여성 작가의 에세이 프로젝트로 확인되는 편당은 2022년 20건 이상, 2021년의 경우에는 30건이 넘는다. 기성 출판사에서 편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인’ 저자들의 독립출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세이의 내용 역시 ‘나’의 경험과 주변의 평범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페미니즘과 관련한 출판 편당에 참여함으로써 책이 다루고 있는 이슈나 저자의 주장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이를 하나의 페미니스트 실천으로 여기는 독서문화가 정착하면서, 독자들은 등단과 같은 이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콘텐츠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 자신의 관심사나 신념이 일치한다면 저자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든 아니든 얼마든지 책을 구입하는 것이다. 아래의 표는 텀블벅 사이트에서 편당이 성사된 출판물 중 페미니즘 이슈를 주제로 한 출판물을 편당금액 순으로 정렬한 것이다.(분류: 텀블벅 기준) 이 서적들은 모두 지난 몇 년간 페미니즘

운동이 핵심적인 이슈로 다른 주제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저자	제목	펀딩 기간	후원자 (명)	펀딩금액 (원)	키워드	분류
작가1	탈코일기 1,2	2018.11.28.~ 2019.01.01	8,780	193,481,760	탈코르셋	에세이
경제 프로젝트팀 B코노미	BECONOMY (비코노미)	2019.01.01.	2,873	78,599,000	비혼여성, 경제지침서	실용· 취미
추적단 불꽃	우리, 다음	2021.03.18.~ 2021.04.30.	1,969	62,960,777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저널 리즘
참고문헌 없음 준비팀	참고문헌 없음	2017.02.20.~ 2017.03.19.	2,321	61,831,507	문단 내 성폭력	저널 리즘
닷페이스	세탁소의 여자들	2018.08.27.~ 2018.09.27.	1,865	49,422,160	낙태죄 폐지	저널 리즘

상위 다섯 개의 출판물 중에서 압도적으로 펀딩 금액과 후원자 수가 높은 『탈코일기』는 2018년 다음 카페 ‘올뽀’에 익명의 작가가 만화 연재를 시작한 후 입소문을 타면서 펀딩, 정식 출간으로까지 이어졌다. 『탈코일기』의 저자는 ‘강남역 살인사건’ 때 처음으로 페미니즘을 접했지만 2018년 초 탈코르셋을 인증하는 여성들을 보며 충격을 받고, 머리를 자르고 탈코를 실천하며 ‘진짜 페미니스트’가 되었다고 말한다.²⁵ 텃밭벽 커뮤니티에는 ‘친구들과 함께 읽고자 여러 권을 샀다’거나, ‘오탈자가 많고 파본이 왔지만 여자가 큰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 ‘정상에서 보자’, ‘주체적 꾸밈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다’, ‘작가님 덕분에 탈코를 하게 됐다’ 등 이미 탈코 했거나 하고자 하는 후원자들의 간증과 열띤 지지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펀딩금액을 모은 『BECONOMY』 역시 광주·전라 지역의 비혼 공동체인 ‘비컴트루’의 회원 중에서 경제에 관심 있는 ‘평범한 비혼여성’ 일곱 명이 모여서 쓴 경제 지침서이다. 20대부터 30대 중후반의 여성 독자를 타깃으로 삼은 이 책은, 대학생~취준생 시기의 소비와 절약 팁, 사회 초년생의 돈 모으

25 작가1, 『탈코일기 2』, 북로그컴퍼니, 2019, 책날개 및 250쪽의 ‘작가와 인터뷰’ 참조.

는 방법, 자산형성기 여성의 내 집 마련에 이르기까지의 경제 지침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담론에서 벗어난 지방 비혼여성 중심의 경제 담론과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주목을 받았다.²⁶

정리하자면 ‘나’의 모든 경험이 글쓰기의 자원이 될 수 있고 인스타, 유튜브, 트위터, 블로그, 브런치 등 일상을 기록하는 매체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에세이라는 자유로운 형식이 성차별, 성폭력, 임신 출산 육아와 같은 여성·페미니즘의 문제와 접속하면서 ‘여성 에세이’ 전성시대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검토할 것은 ‘여성 에세이’가 열어젖힌 무수한 개별성의 세계가, 어떤 지향성을 갖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느냐이다.

3 페미니스트 ‘되기’에서 여성/페미니스트로 ‘살기’로

3.1 비혼, 혹은 새로운 가족 만들기

‘페미니즘 대중화’ 시기 ‘여성 에세이’에서 빈번하게 다뤄지는 주제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주도하고 있는 ‘4B(비섹스, 비연애, 비혼, 비출산)’와 탈코르셋²⁷ 운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대 중반 ‘강남역 살인사건’, ‘미투운동’, ‘홍대몰카 편향수사’, ‘해화역 시위’, ‘버닝선 게이트’, ‘N번방’ 등 연이은 사건들로 인해, 운동의 영역에서는 물

26 「돈 모아서 결혼하라? 아니, 우린 1인가구 ‘비코노미’!」, 『한겨레』, 2021.1.5.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77323.html>) (최종접속일: 2022. 11.9.)

27 ‘탈코르셋’이란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인 억압, 강요된 꾸밈과 ‘여성다움’에서 벗어나자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2018년 초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 SNS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을 부수고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을 인증하면서(‘#탈코르셋_인증’) 일상의 변화로부터 출발하는 페미니즘 운동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 김애라는 10~20대 여성들에게 탈코르셋은 단지 외모와 관련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비용의 측면에서 남성과의 ‘평등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실천이기에 그토록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수 있었으며, 이 운동이 SNS에 인증·전시하는 전략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탈코르셋을 성공적으로 가시화하고 다른 여성들에게 동참을 요구하여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았다. 김애라, 「‘탈코르셋’, 갯레디위드미(#getreadywithme): 디지털경제의 대중화된 페미니즘」, 『한국여성학』 제35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19 참조.

론이고 일상의 영역에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잠재적 요소를 배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부상하게 된다.²⁸ 또한 가스라이팅, 스토킹, 불법촬영,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여성이 죽거나 심하게 다치는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알려지면서,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일상화될 정도로 여성에게 남성과의 로맨스가 말 그대로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마저 커지게 되었다.

독립 이전에 살던 동네는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 지역이었고 밤에 가로등이 켜져 있어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었다. 밤길 속 환하게 빛나는 경비실은 이곳이 안전한 곳이라는 표지판과도 같았다.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 사건’때 친구들이 ‘밤에 집에 들어가는 길이 너무 무섭다’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하면서도 그 공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사한 선화동의 빌라는 어두운 원룸촌에 있었고, 이때부터 밤길의 공포도 내 언어가 됐다. 인터넷 설치 기사가 왔을 때, 정수기 설치 기사가 왔을 때, 도배 기사가 왔을 때도 그랬다. 지현이 출근한 사이 대부분의 기사들이 왔고 나는 그들과 단둘이 집에 있었다.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 하면서도 휴대폰을 꼭 잡고 있거나 방문을 잠갔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만약 이 집에 나 혼자 살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전화 한 번에 달려와 줄 사람들이 나에겐 있었다. 공포의 크기는 거기서 달라진다.²⁹

비혼 여성 간의 공동주거에 대한 경험의 서술에서 드러나는 ‘강남역 살인사건’과

28 ‘생물학적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트랜스젠더, 난민과 같은 소수자를 배제하고, 이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페미니즘 운동을 여성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 인식하는 ‘터프’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 역시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트랜스젠더의 ‘폭력’이다. 또한 트랜스젠더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기에 여성이 겪는 차별과 혐오의 경험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논리도 사용된다. 그렇기에 ‘생물학적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급진 페미니즘’의 주장은 여자 화장실, 여자대학, 여성 스포츠 경기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보명, 「‘여성 공간’과 페미니즘-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배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71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0 참조.

29 권사랑,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 권사랑·서한나·이민경, 『피리 부는 여자들: 여성 간의 생활·섹슈얼리티·친밀성』, 보슈, 2020, 35-36쪽.

‘밤길의 공포’, 남자 기사와 단둘이 남겨지는 것에 대한 불안은 여성 비혼 공동체를 꾸림으로서 비로소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안전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오늘날 ‘영영페미니스트’의 자기서사에서 페미니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여성만을 위해 싸워야만 하는 이유, 남성이 아닌 여성과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물론 불안과 공포만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김하나·황선우의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는 여전히 “세상에 괜찮은 여자가 싱글로 남아 있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그의 요지였다. “정말 값진 보석은 사막 한복판에 숨겨져 있어도 세상에 나오는 법이에요. 상인들이 어떻게든 찾아내서 값을 지불하고 손에 넣거든.”³⁰과 같은 어느 남성의 ‘보석이론’이 여전히 입 밖으로 나오는 한국사회에서, 여성 동거인(그리고 고양이)과 살아가는 평화롭고 유쾌한 일상의 기록을 통해 대안적인 여성 공동체를 열망하는 독자들에게 하나의 참고 사례를 제시한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공정’과 ‘능력주의’가 성평등의 목적이나 성차별 구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한정된 자원의 분배 결과만을 문제 삼으면서 여성과 소수자의 성적 차이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서 여기는 반동적 담론으로 전개되고,³¹ 경제적 위기 속에서 중산층 가족주의와 세습이 한층 더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려, 여성들은 연애와 결혼, 임신, 출산, 육아라는 선택지를 성차별적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는 걸림돌로 인식하게 되었다. ‘4B’를 실천하고 있는 20대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녀들은 ‘4B’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탄탄대로”, “가부장제 타파”, “클린한 삶”, “여성의 삶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버리는 가치관”, “나답게 사는 것,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삶”³²이라고 답한다. 결혼, 임신, 출산을 없애는 것이 바로 불순물이 없는 클린한

30 김하나·황선우,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위즈덤하우스, 2019, 80쪽.

31 근가산점제와 징병제를 둘러싼 논쟁, 여성가족부 폐지 수순, 여성할당제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 ‘역차별’과 같은 예를 떠올려볼 수 있다. 엄혜진, 「성차별은 어떻게 ‘공정’이 되는가?: 페미니즘의 능력주의 비판 기획」, 『경제와사회』 제132호, 비판사회학회, 2021.

32 강미선·김성희·정인혜, 「내 뜻대로 삶 쓰기: 20대 여성의 4B 가치관 형성 과정 연구」, 『여

삶, 온전한 ‘나’로 사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추후 살펴 볼 여성의 경제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³³

그러나 ‘4B’나 탈코르셋 담론만이 여성의 몸과 사적 영역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태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기존의 임신·출산 이야기의 틀에서 벗어나, 임신부의 몸과 임신 증상, 비출산에 대한 고민을 다루는 글도 연이어 출간되고 있다. ‘과학 에세이’ 『아기 말고 내 몸이 궁금해서』(2019), ‘열 받아서 매일매일 써내려간 임신일기’라는 부제를 가진 『나는 아기 캐리어가 아닙니다』(2019),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낳지 않기로 결심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2020)처럼, 최근 ‘여성 에세이’는 ‘엄마’라는 여성의 위치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것과 더불어, 임신을 숭고한 일로 포장하면서도 정작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한다. 이러한 양상은 과거 여성의 자전적 에세이가 직업적 성취를 강조하던 전통적 성역할을 강조하던 결국 여성의 행복이 남편의 적극적 후원과 지지, 자녀에 대한 모성과 같은 가정적 요소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던 것에서 탈피한 지점이다.³⁴

성학논집』 제37집 1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20, 163쪽. 이 논문의 분석 내용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비규범적 삶의 양식을 실천하고 있음에도 결혼과 출산에 있어서는 결혼 후 출산이라는 순차성을 수용하고 비혼과 비출산이 자연스레 동반되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대체로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상성의 규범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168쪽)

33 ‘4B’ 여성을 인터뷰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들 여성이 새로운 가족 구성에 대한 상상을 펼치는 가운데 대안 가족을 형성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입양을 생각하기도 하며, 입양을 통한 양육을 미래세대 여자아이에 대한 후원의 개념으로까지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돌봄’의 차원은 의식적/비의식적으로 회피되고 있었는데, 이는 ‘여성성’에 대한 거부와 함께 여성의 경제적 문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4B 여성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132-136쪽.

34 1990년대 중반에 들어 고학력 여성이 증가하고 여성이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성역할이 강조되고 전문직보다는 노동시장의 하층부에 머무르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성공한 여성들의 자전 에세이가 출판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다. 이 시기 여성 자전 에세이 베스트셀러를 분석한 백창화에 따르면 조안 리의 『스물 셋의 사랑 마흔 아홉의 성공』(1994), 이정순의 『강한 여자는 수채

송해나의 『나는 아기 캐리어가 아닙니다』는 트위터 계정 ‘임신일기(@preg-diary_ND)’에 임신과 관련한 경험을 쓴 트윗과 멘션을 모아 출간한 책이다. 짧은 일기 형태의 임신 기록은 집, 일터, 지하철 등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겪는 소소한 일에서 출발하여 노키즈존이나 낙태죄 문제와 같은 사회 문제로 확장되고, 정상성 규범에 대한 질문, ‘기혼 유자녀 페미니스트’로서의 삶에 대한 다짐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동안 사회는 임신한 여성 개인의 각기 다른 경험을 하나의 경험으로 치부하고 임신한 여성을 ‘기혼 유자녀 여성’이라는 그룹 안에 가두며 임신·출산에 대한 논의를 축소시키고 사적인 이야기로 한정시켰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둔다. 임신 경험은 저마다 다르고 여성들의 서사는 낱작하지 않다. 임신한 여성을 혼인 여부에 따라 구분 지어서도 안 될 것이며,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임신하지 않은 여성’이 소외되어서도 안 된다.³⁵

2019년 4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낙태죄 존치를 주장한 헌법재판관은 “우리는 모두 태아였다”라는 ‘명문’을 남겼다. 우리가 모두 태아였고 아기였고 어린이였다면 어쩌서 우리나라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범람하는지 모르겠다. 영유아를 반기지 않고 적대하는 사회는, 실은 영유아를 통제하지 못하는 ‘엄마’를 혐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³⁶

2021년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이며, 2022년의 출산율은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렇게 기록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매번 경신하는 사회적

화처럼 산다』(1994), 엄앵란의 『뜨거운 가슴에 좌절은 없다』(1996), 서진규의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1999)와 같은 여성 자전 에세이가 20만 부, 많게는 180만 부 이상 팔리면서 흥행을 이어 나갔다. 백창화, 「여성 자전 에세이에 나타난 여성의 성공과 정체성-1990년대 베스트 셀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참조.

35 송해나, 『나는 아기 캐리어가 아닙니다』 문예출판사, 2019.(전자자료)

36 위와 같음.

만, ‘사람들이 나보고 맘충이래’라는 ‘김지영’의 말처럼 엄마로서의 여성의 지위는 ‘별레’만도 못한 것으로 손쉬운 비난의 대상이 된다. 2016년 ‘대한민국 출산지도’³⁷ 논란에서처럼 여성의 몸은 ‘아기 캐리어’로 여겨지지만 어떤 출산, 예컨대 방송인 사유리씨의 정자기증을 통한 출산처럼 ‘남자 없는 출산’은 가족 개념을 위협하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배척되고 있다. 여전히 이성에 가족 중심주의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혼자 살기로 했다’, ‘여자랑 살기로 했다’, ‘나는 아기 캐리어가 아니다’,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하는 ‘여성 에세이’의 목소리는, 전통적인 모성 담론이나 현모양처론에서 벗어나 비속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형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3.2 여성이여 ‘돈’과 ‘야망’을 가져라

“여성이 픽션을 쓰기 위해서는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³⁸라는 『자기만의 방』의 유명한 구절은 최근 일군의 여성들에게 ‘돈’과 ‘야망’에 대한 모토로 번역된다. ‘(비혼)여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족하며, 주식·코인투자를 통해서 돈을 모아 집 한 채라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투기, 주식과 코인 열풍이 불면서 여성들 역시 투자주체로서 ‘영끌’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무엇보다 여성들의 금융 투자는 여성의 독립이라는 페미니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긍정되기 시작했다. 과거 주식이 남성들이 가산을 탕진하는 부정적이고 위험한 영역으로 인식되었다면, 2010년대 후반부터 왜 주식은 남성의 전유물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점차 여성의 주식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평가가 늘어나고 오히려 남성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제행위

37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전국의 가임기 여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별로 출산장려정책을 확인하고 ‘경쟁’을 유도한다는 목적에서 배포되었으나, 저출산의 탓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여성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만 여긴다는 항의가 쏟아지자 철회되었다.

38 버지니아 울프, 이미에 역, 『자기만의 방』, 민음사, 2006, 10쪽.

로 의미화된 것이다.³⁹ ‘신라호텔 망고빙수’⁴⁰로 촉발된 여성의 주식투자와 페미니즘 가치의 공존이라는 문제는 여성의 다양한 소비활동을 ‘무개념’으로 여기는 것은 ‘김치녀’ 낙인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과, ‘젠더화된 소비’를 줄임으로써 합리적인 경제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의 경합으로 드러나고 있다.⁴¹

투자/투기를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담론이 확산되면서, 적극적인 금융 공부를 통해 부자가 되자고 외치는 에세이들도 속속 늘어났다. 『21세기 버지니아 울프를 위한 금융 공부』의 저자는 워킹맘으로서 월 500만 원의 ‘비’근로소득과 자기 명의의 집을 목표로 금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버는 돈이 진짜 ‘내 돈’일까요.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들여서 얻은 돈’은 반대로 말하면 ‘시간을 들이지 않거나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돈’이 됩니다. 조건이 붙기 때문에 완전한 ‘내 돈’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21세기 버지니아 울프가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내 시간과 노동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정기적인 소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

39 김수정·조명아·이정윤,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20-30대 여성의 주식 담론: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3권 2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2, 267-272쪽. 이 논문의 저자들은 20~30대 여성의 주식 투자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주체로의 포섭이라는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절박한 청년 여성들의 실천으로서 해석하고 있다.

40 여성들에게 신라호텔의 비싼 망고빙수를 사 먹을 바에는 그 돈으로 호텔신라의 주식을 사라고 조언하는 2019년의 트윗이 2020년에 회자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망빙’ 밈은 ‘여성의당’이 총선 준비를 위한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이부진 사장님! 신라호텔 애플망빙을 더 사먹을 수 있도록 딱 1억만 돌려주세요. 한국 여성의 미래에 투자하세요”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에서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여성이 주된 소비자로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에 발신하는 의도였다는 해명이 있었으나 이후 당 차원의 사과문이 게시되었다. 그러나 ‘#애플망빙’은 ‘#엄마와_딸이_함께’ ‘#주식_사자’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홍보물에 재차 사용되었다.

41 김수정·조명아·이정윤, 앞의 글, 272-278쪽.

습니다. 그것이 진짜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⁴²

저자는 이 ‘금융 에세이’에서 소득을 ‘시바소득(근로 소득)’, ‘재능소득(플랫폼 소득)’, ‘자본소득(투자 소득)’으로 구분하고, 시간을 빼앗는 ‘시바소득’의 비율을 점차 줄일 것을 조언한다. ‘금융언니’와 ‘금융 생활 서사’ 나누기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유 선언문’ 쓰기와 ‘금융 유연장’ 쓰기를 실천하는 이 에세이는, ‘시바소득’이라는 멸칭에서처럼 노동의 위상과 가치가 땅에 떨어진 한국의 현실과 함께 노동이 서사를 잃어가는 반면, 경제와 금융의 영역이 서사를 얻어 여성의 삶에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동보다는 투자를 통해 자유로운 여성이 되자는 목소리는 최근 몇 년간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자기만의 ‘파이’를 확보하고 유리천장을 부수어 ‘정상에서 만나자’라고 독려하는 흐름과 공명한다. 그 한 가지 예로서 ‘#야망보지_힘주기_프로젝트’는 여성들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공유함으로써 서로를 북돋는 행동이다. 물론 성공을 위해서는 ‘출산불매’와 ‘결혼불매’도 필수적이다.⁴³

여자라고 더 착하거나 도덕적인 존재일까? 아니다. 혹시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건 여성이 사회적, 육체적 약자로서 권력에 더 잘 순응했기 때문

42 불리, 『21세기 버지니아 울프를 위한 금융 공부』, 들녘, 2021, 18쪽.

43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의 여성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를 분석한 엄혜진은 여성의 자아실현과 성공, 더 나은 삶이라는 가치를 자극하는 소비 담론이 페미니즘 담론과 중첩되거나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장면에 주목한다. 이때 여성 자기계발서는 ‘남성적 자질’과는 구별되는 ‘여성적 자질’을 통해 남성처럼 ‘1인 기업가’, ‘CEO’가 되라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재테크뿐만 아니라 ‘혼테크’를 통해 위기를 관리할 것을 주문한다. ‘혼테크’라는 용어의 등장은 결혼이 여성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며 불안정하고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기에, 결혼을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2000년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엄혜진,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 자아 기획의 이중성과 ‘속물’의 탄생: 베스트셀러 여성 자기계발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2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16, 57-60쪽. 그런 점에서 오늘날 ‘4B’의 실천은 결혼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아예 삶의 선택지에서 제거함으로써 위험을 차단하려는 시도이다.

이다. 여자도 얼마든지 부도덕해질 수 있다. 남자만큼 혹은 남자보다 잔인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페미니즘은 평화주의가 아니며 도덕성 투쟁이 아니다. 남성들에게 빼앗긴 여자 몫의 파이를 되찾는 투쟁이다. 한마디로 밥그릇 싸움이다.⁴⁴

김진아의 ‘야망 에세이’는 소수자의 권리나 정치적 올바름에 취한 ‘주체적 쿨걸’의 환상에서 벗어나서 여성들이 각자의 파이를 찾고 권력자가 되자고 외친다. 이러한 ‘야망 에세이’에서 여성노조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⁴⁵ 노동조합이 권리를 ‘빼앗는’ 조직도 아닐뿐더러, 이들의 ‘파이론’은 애초에 천장과 지붕이 없는 곳에 내던져진 하층 노동계급 여성을 포함한 적도, 연대의 대상으로 삼은 적도 없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파산을 선언하는 ‘99% 페미니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유리 천장을 부수고, 그래서 대다수가 바닥에 쏟아진 유리 조각들을 치우게끔 만드는 일에 관심이 없다. 전망 좋은 사무실을 차지한 여성 CEO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CEO와 전망 좋은 사무실이란 것을 없애 버리길 원한다.”⁴⁶ ‘입금의 연대’⁴⁷라는 용어를 통해 여성들의 집단적

44 김진아, 『나는 내 파이를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 바다출판사, 2019, 33쪽.

45 “라인을 만들고 세력을 키우자. 나부터 끊어주는 선배, 받쳐주는 후배가 되자. 여성 노조를 만들자. 우리는 서로의 편이다.” 위의 글, 150쪽.

46 낸시 프레이저·친지아 아루짜·티티 바타차리아, 박지니 역, 『99% 페미니즘 선언』, 움직임출판사, 2020, 48쪽.

47 이 용어는 ‘페미니즘 리부트’ 당시 여성들이 여성단체나 페미니즘 이슈를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기부를 한다거나 페미니즘과 관련한 책과 굿즈 등을 구매함으로써, 소비자-페미니스트의 저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페미니즘을 실천하고자 했던 움직임을 일컫는 표현이며, 필자 역시 201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러한 ‘입금의 연대’ 방식을 20~30대 페미니스트들의 유력한 실천 방식으로서 의미화한 바 있다.

한우리는 ‘덕질’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이러한 페미니스트들의 소비 행위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페미 굿즈를 구매하고 페미니스트 셀럽의 강좌를 들으며 저서를 구매하는, 마치 페미니즘을 덕질하듯 하는 일부 영영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팬덤의 지갑부심과 권리를 행사할 줄 아는 소비자라는 정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우리, 『‘이생망’ ‘헬조선’ 여성청년들의 페미니스트 되기』, 『여/성이론』 제37호, 도서출판여이연, 2017, 74쪽.

소비 행동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펼칠 수 있었던 ‘리부트’ 초기의 모습과 달리, 다른 성별, 계급, 인종, 성소수자와의 연대란 ‘나’의 ‘안전한’ 공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소비 행위처럼, ‘나’의 권리를 또다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도덕 코르셋’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 나오며

이 글은 여성들이 페미니스트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데에서 나아가 여성/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 방법들을 평범한 동시대 여성들의 삶 속에서 모색하고 있는 장면을 ‘여성 에세이’ 양식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에세이 읽기/쓰기를 여성의 일상적 경험을 경유하여 한국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를 드러내고,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가 정해 놓은 생애적 각본과 역할을 거부하는 실천으로 의미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차별적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위기를 관리하고 적절한 투자 전략을 조언하면서 개별적 노력을 통해 각자도생하라는 신자유주의적 각본 또한 ‘여성 에세이’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가치로서 ‘목소리’의 중요성을 역설한 닉 콜드리는 “목소리는 증식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는 여전히 실패할 수 있다”⁴⁸고 말한 바 있다. 사회의 모든 영역이 시장화되어 경쟁과 효율성의 원리가 삶을 잠식할 때, 목소리(이야기)의 세계는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논리로부터 한 발 떨어져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를 숙고하는 장으로서 존재해왔다. 그런 점에서 ‘야망 있는 여성’, ‘혼자 잘 살기’, ‘자매들(만)의 서사’가 누락하고 있는 목소리에 대한 성찰과 재현의 시도는 앞으로의 페미니스트 독서/출판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페미니즘 대중화’ 시대의 ‘여성 에세이’가 페미니스트로서의 분투가 삶의 세목마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기 기록임은 분명하다. 성차별과 가부장제에 대한 그녀들의 싸움이 계속될 것이므로, ‘여성 에세이’ 역시 끊임없이 쓰

48 닉 콜드리, 이정엽 역, 『왜 목소리가 중요한가』, 글항아리, 2015, 263쪽.

이고 읽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페미니스트 독서/출판문화의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여성 에세이’가 새로운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페미니즘의 언어와 지식을 재발명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입하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권사랑·서한나·이민경, 『피리 부는 여자들: 여성 간의 생활·섹슈얼리티·친밀성』, 보수, 2020, 35-36쪽.
- 김진아, 『나는 내 파이를 구할 뿐 인류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 바다출판사, 2019, 33쪽, 150쪽.
- 김하나·황선우,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위즈덤하우스, 2019, 80쪽.
- 블리, 『21세기 버지니아 울프를 위한 금융 공부』, 들녘, 2021, 18쪽.
- 송해나, 『나는 아기 캐리어가 아닙니다』 문예출판사, 2019.(전자자료)
- 작가1, 『탈코일기 2』, 북로그컴퍼니, 2019, 250쪽.

단행본

-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나무연필, 2017, 47쪽.
- 임옥희·김미연·김은하, 『실격의 페다고지』, 도서출판 여이연, 2022, 182-183쪽, 190-191쪽.
- 낸시 프레이저·친지아 아루짜·티티 바타차리야, 박지니 역, 『99% 페미니즘 선언』, 움직씨 출판사, 2020, 48쪽.
- 닉 콜드리, 이정엽 역, 『왜 목소리가 중요한가』, 글항아리, 2015, 263쪽.
- 버지니아 울프, 이미애 역, 『자기만의 방』, 민음사, 2006, 10쪽.

논문

- 강미선·김성희·정인혜, 「내 뜻대로 삶 쓰기: 20대 여성의 4B 가치관 형성 과정 연구」, 『여성학논집』 제37집 1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20,

153-194쪽.

김보명, 「‘여성 공간’과 페미니즘-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배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71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0, 83-118쪽.

김보화, 「성폭력 상담일지를 통해 본 2018년 한국 미투운동의 의미」, 『페미니즘 연구』 제19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19, 3-43쪽.

김수정·조명아·이정윤,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20-30대 여성의 주식 담론: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3권 2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2, 257-288쪽.

김애라, 「‘탈코르셋’, 갯레디위드미(#getreadywithme): 디지털경제의 대중화된 페미니즘」, 『한국여성학』 제35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19, 43-78쪽.

박진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4B 여성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1-161쪽.

백창화, 「여성 자전 에세이에 나타난 여성의 성공과 정체성-1990년대 베스트 셀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93쪽.

송지수, 「페미니즘 알기의 의미-10-20대 여성들의 ‘TERF’ 지지 입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1-110쪽.

엄혜진,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 자아 기획의 이중성과 ‘속물’의 탄생: 베스트셀러 여성 자기계발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2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16, 31-69쪽.

_____, 「성차별은 어떻게 ‘공정’이 되는가?: 페미니즘의 능력주의 비판 기획」,
『경제와사회』 제132호, 비판사회학회, 2021, 47-79쪽.

오혜진, 「카뮈, 마르크스, 이어령-1960년대 에세이즘을 통해 본 교양의 문화정치」, 『한국학논집』 제51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 137-178쪽.

이다혜, 「책 읽기는 싫지만 에세이는 읽고 싶어」, 『자음과모음』 제40호, 2019 봄, 264-275쪽.

이주미, 「여성 에세이를 통해 본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말의 귀환』과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107-128쪽.

이효민, 「페미니즘 정치학의 급진적 재구성: 한국 ‘TERF’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34권 3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9, 160-223쪽.

장윤원, 「20-30대 여성 우울증과 페미니스트 대항서사의 가능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1-124쪽.

장은수, 「에세이 열풍을 어떻게 볼 것인가」, 『황해문화』 제102호, 새얼문화재단, 2019 봄, 258-266쪽.

정고은, 「2015~2016년 페미니즘 출판/독서의 양상과 의미」, 『사이間SAI』 제22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7, 167-200쪽.

정주아, 「1인칭 글쓰기 시대의 소설」, 『창작과비평』 제192호, 2021 여름, 53-69쪽.

한우리, 「‘이생망’ ‘헬조선’ 여성청년들의 페미니스트 되기」, 『여/성이론』 제37호, 도서출판여이연, 2017, 58-78쪽.

기타

인터넷 서점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홈페이지

텀블벅 홈페이지

『노컷뉴스』, 『뉴스1』, 『여성신문』, 『한국경제』, 『한겨레』 등 인터넷 신문

Abstract

A Study on the Era of the “Popularization of Feminism”
and the Future Trajectory of Feminist Reading and Publishing
with a Focus on “Women’s Essays”

Jeong Goeun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text in which the “women’s essays” emerged as an important cultural phenomenon during the “popularization of feminism” in the late 2010s, a period that is distinct from the early years of the “feminism reboot.” In addition, this paper analyzed the core themes dealt with by “women’s essays.” The active publication and

reading of essays written by ordinary women, not writers or intellectuals, demonstrates that women are seeking out specific methods for living as women/feminists in works by women of their generation. “Women’s essays” prominently feature themes such as pregnancy and childbirth, non-marriage, alternative women’s communities, and the economic lives of women. This is a result reflecting the movement to overcome the sexist reality through the practice of the “4B” and “escape the corset” movement, along with efforts to break away from traditional gender roles.

This paper interprets the reading and writing of “women’s essays” as a practice that reveals the sexist structure of Korean society and rejects the life scripts and roles enforced by the existing patriarchal order. I also critically interrogate the fact that the neoliberal script that calls for each individual to be reborn is also transmitted through “women’s essays.” What we need now is to continuously trace the changing aspects of feminist reading and publishing so that “women’s essays” can become a field to reinvent the language and knowledge of feminism to reach a new future.

Key words: popularization of feminism, feminism reboot, women’s essays, 4B movement, tal-corset(escape-the-corset)

본 논문은 2022년 11월 24일에 접수되어
202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